

부활의 증인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당신들과 함께 있을 때에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내게 관한 일들이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 일이 있는데 이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서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다음 말씀하셨다. 「성서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던 죄를 용서 받는다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당신들에게 보여 주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시오.」

(누가24 : 44-46)

그리스도의 신앙은 결코 신조를 의우거나 지식으로써 터득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은 매일 생활체험을 통해서 확증됩니다. 경험을 통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만일 그러한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철학이나 형이상학이지 신앙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고백은 언제나 나 자신의 생활 속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생활이나 신학지식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결

단에서 체험한 일, 즉 감사할 일들, 실패한 일들, 또 사소한 일에서도 인간적인 교만이나 아집, 독선으로 저지른 갖가지 실수들을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교회에 나올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활에 관한 설교를 수없이 듣고, 또 세례문답이나 그밖의 신앙고백을 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나 말로 부활을 고백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부활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죽는 일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고, 죽는 경험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부활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장례를 지내는 그러한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죽음을 육체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데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죽음을 말할 때 그것은 이러한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죽음의 뒷받침이면 죽음 저쪽에 있어 죽음의 밑바탕이 되는 것을 이 말은 의미합니다. 이 말을 다른 각도에서 쉽게 풀어 보면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환원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인 죽음 자체의 소망을 무엇에 두는가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죽음을 체험합니다. 이 일상적인 죽음의 경험은 결코 봉변을 당해서 죽을 뿐 했다는 뜻의 경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사람들은, 특히 6·25사변을 겪은 어른들은 이런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밖에도 우리 주변에는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교통사고, 연탄가스 중독, 그밖에 뜻하지 않은 사고가 언제 어디서 생길는지 모르며 죽음의

가능성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상적인 죽음의 경험은 결코 이러한 불의의 사고로 죽을 뻔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매일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전 소망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거는 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매일 매순간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유혹, 물질적인 유혹이든, 정신적인 유혹이든,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일하는 데 참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죽어서 다시 산다는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만에 부활하신 것만을 가지고 부활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부터 이미 그는 죽음과 부활의 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겼다는 뜻은 그 싸움에서 죽었다가 사셨다는 뜻입니다. 즉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부활을 승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사는 생활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생활을 하지 않고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무엇이 진정한 소망이며 무엇이 헛된 소망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 자신의 생활 속에서 찾아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소망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이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잡아 죽이고 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를 투옥했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인 그때처럼 유대인 앞에서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계획된 전날밤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두 개의 죄사슬에 묶인

채 경비병 두 사람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깨워 허리머를 띠고 신을 신고 따라 오라고 했습니다. 옥문이 활짝 열리고 베드로는 천사의 안내를 받아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은 마치 예수께서 무덤을 헤치고 승리하신 사건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무덤에서 나오신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처럼 베드로도 옥문을 나온 그대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찾게 된 것입니다.

마침 이 집에는 베드로의 안부를 걱정하고 그의 석방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갔던 어린 여종 로베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기뻐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황급히 집안으로 뛰어 들어가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고 외치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로베를 미쳤다고 나무랐습니다. 향료를 갖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놀라고 어리둥절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베드로의 출현 앞에서 놀라고 어리둥절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석방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이 막상 베드로가 나타나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예수께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빈 무덤을 보고, 그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모두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를 믿지 않은 데서 서로 일치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를 목격하고 그 사실을 전하는 로베를 미쳤다고 하는 것이 그 실상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타난 것을 믿지 않은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한 일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은 헛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을 이 땅 위에, 이

땅의 권세에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이 땅에만 소망을 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의 것에만 두고 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하나님의 권능은 무의미하며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세상에다 모든 소망을 건 사람들은 무덤의 문이 열리고 옥문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모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신앙 경험을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을 하늘나라에 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결코 요행을 바라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이 하늘 나라에 있다고 해서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만을 희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걸고 산다는 것은 바로 매일의 생활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의 뒤를 따라가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 죽었다가 다시 사는 믿음의 경험을 한다는 것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인간의 계교나 우상숭배가 패배를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대로, 「너희는 악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선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리라.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와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법정에서 공의를 세워야 한다」(아모스5:14-)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걸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건다는 것은 이처럼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공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매일 내 이웃의 어려움을 위해서 나 자신을 죽이고 다시 사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며 십자가의 생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식품이 아닙니다. 통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지고 그 무거운 중량을 어깨에 느끼는 생활, 쓰라리고 진땀이 바짝바짝 나는 생활, 인

간의 입에서 나온 말로는 도저히 아물 수 없는 쓰라린 생활을 우리가 해보았습니까?

경제 생활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는 되도록 남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미끈하게 사는 길만 택하려고 합니다. 바른 말을 하려고 해도 눈치부터 먼저 보게 되며 남을 위해 희생해 도 말로써 적당히 얼버무려 버립니다.

이러한 생활에서 우리의 마음이 안정을 얻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하면 피할수록 우리 생활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주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한 십자가의 죽음을 회피하는 생활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떠들어서 이 불안을 호소해 버리는 길입니다. 불안한 사람일수록 떠들기를 좋아하며 불안정한 집단일수록 큰 소리를 합니다. 작은 일을 크게 만들어서 떠들어대고 큰 일을 작게 만들어 깔아뭉갭니다. 그리고 걸치레를 좋아하여 외면의 미관만 손질해 놓고 남에게 자랑합니다. 모든 부조리를 벽장 속에 처박아 놓고 방안만 말끔히 정돈하여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러나 이런 집의 벽장 속은 온갖 쓰레기가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떠들고 걸치레하는 사람이나 사회는, 또 무슨 일이든 빨리 해 버리려고 합니다. 집짓는 일, 나라를 세우는 일을 생전에 해치우려는 것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 죽음과 죄를 이기신 승리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이 세상을, 다시말하면, 내 가족, 내 민족, 내 교회를 죽도록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되 이 세상을 본받아서 안됩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대신에 이 세상에 얽매어 남을 미워하

고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됩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
화나 권력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사랑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어, 너는 나를
사랑하시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예, 당신을 사랑합니
다」고 답하자, 「내 양을 잘 돌보라」고 하시며, 이 문답을 그
리스도는 세 번이나 되풀이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가 참으로 그의 부활을 증언하려면 서
로 사랑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눌린 자들을 매
번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 그의 부활을 고백하고 그
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는 날입니다. 그리
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따르겠다고 맹세한 우리들의 새 날이
밝아오는 아침입니다. 절망과 좌절, 불안과 초조 속에서, 다
시 용기를 얻고 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
기를 다짐하는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시련과 고난도 내일 맞이할 부활의 영
광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부활
의 신앙을 굳게 지켜 가면서 희망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1976. 4. 18. 한빛교회)